

TEX 강의 (1)

김강수 강의; 김영욱 적음

2012.01.

1 샘플 섹션

글쓰기의 주목적은 (현대적인 몇몇 특이한 문학 작품들은 빼놓고) 글쓴이의 사상과 정보 혹은 지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있다. 내용이 잘 구성된 글은 훨씬 이해하기가 좋다. 나아가 문서의 조판 형식이 문서 내용의 논리적 의미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면 독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행본은 각 행의 길이가 똑같도록 조판하는 경우가 많다. L^AT_EX은 단락 전체의 내용을 최적화하여 낱말 사이에 줄바꿈과 공백을 삽입한다. 필요하다면, 줄 끝에 잘 들어가지 않는 낱말을 분철하여 하이픈을 삽입하기도 한다. 단락은 문서 클래스에 정의된 대로 조판된다. 보통 단락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고 단락과 단락 사이에는 여분의 간격을 두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116쪽의 제 6 장 3.2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운다.

줄바꾸는 방법

- 빈 줄 하나를 넣는다.
- `\par`
- `\parindent`라는 명령이 `indent`의 크기(길이)임. 이것을 바꿀 때는 `\setlength`, `\addtolength`를 사용한다.
- `\parskip`은 모든 문단 사이의 간격을 준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문단의 들여쓰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문단 사이의 간격으로 대신한다.

행간격은 `baseline` 사이의 간격이다. 10pt로 조판하는 경우 글자의 `top`에서 `bottom`까지의 간격이 10pt이고 이 중간에 `baseline`이 지나간다. 통상적으로 두 줄 사이에는 2pt를 준다. 즉 두 `baseline` 사이의 간격은 12pt가 된다.

`\baselineskip`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baselinestretch`는 `multiplicant`가 아니고 `multiplier` 이므로 `\setlength`로 못바꾼다. `multiplier`는

`\renewcommand`로 바꿔야한다. 문서 전체에 적용하므로 `\begin{document}`보다 전에 명령을 준다.

```
\renewcommand{\baselinestretch}{1.7}
```

이것이 double spacing의 간격이다. parameter를 2.0을 쓰면 실제로 24pt가 떨어져 2.4배가 된다.

일부만 `baselinestretch`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 말 것) 그러나 locally 적용시키는 방법은? 답은 `\begin{group}`과 `\end{group}` 사이에 넣는다. 즉 두 중괄호 사이에 넣는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begin{Spacing}{1.0}`과 `\end{Spacing}`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2 문단

선언(명령)	환경
<code>\centering</code>	center
<code>\raggedright</code>	flushleft
<code>\raggedleft</code>	flushright
적용범위 <code>{...\par}</code>	<code>\begin{...}, \end{...}</code>

여기서 문단에 대한 선언과 환경의 차이는 문단 환경의 경우에 맨 위와 마지막에 vertical 간격이 들어간다.

3 중요한 환경

1. 정렬 환경
2. quote 환경과 quotation 환경. quotation 환경은 indent 함.
3. verbatim 환경
4. verse 환경: 시의 조판.
5. 수학 환경
6. tabbing 환경
7. 리스트 환경 (enumerate, itemize, description)

tabbing 환경

```
aaaaaaaaaaa
A B C
```

글 쓰기의 주목적은 (현대적인 몇몇 특이한 문학 작품들은 빼놓고) 글쓴이의 사상과 정보 혹은 지식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있다. 내용이 잘 구성된 글은 훨씬 이해하기가 좋다. 나아가 문서의 조판 형식이 문서 내용의 논리적 의미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면 독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abPositions`는 문서 안에서 바꾸어줄 수 있다. 따라서 `tabbing` 환경은 쓰지 않고 `tabto`를 사용하면 좋다.

내어쓰기는 `\hangfrom`을 사용한다.

단행본은 각 행의 길이가 똑같도록 조판하는 경우가 많다. `LaTeX`은 단락 전체의 내용을 최적화하여 낱말 사이에 줄바꿈과 공백을 삽입한다. 필요하다면, 줄 끝에 잘 들어가지 않는 낱말을 분철하여 하이픈을 삽입하기도 한다.

단행본은 각 행의 길이가 똑같도록 조판하는 경우가 많다. `LaTeX`은 단락 전체의 내용을 최적화하여 낱말 사이에 줄바꿈과 공백을 삽입한다. 필요하다면, 줄 끝에 잘 들어가지 않는 낱말을 분철하여 하이픈을 삽입하기도 한다.

단행본은 각 행의 길이가 똑같도록 조판하는 경우가 많다. `LaTeX`은 단락 전체의 내용을 최적화하여 낱말 사이에 줄바꿈과 공백을 삽입한다. 필요하다면, 줄 끝에 잘 들어가지 않는 낱말을 분철하여 하이픈을 삽입하기도 한다.

4 oblivoir가 바라보는 font 세계

oblivoir가 바라보는 font 세계는 Latin 문자 영역, 한글 영역, (2byte 한글을 제외한) 한자 영역의 셋이 있다.

```
Latin      \setmainfont{폰트이름}

           \setsansfont{폰트이름}
```

`\setmonofont{폰트이름}`

한글(한자) `\setABfont` 모양이다.

A는 main, sans, mono, B는 hangul, hanja에서 선택.

`\setkorAfont`와 같이 쓸 수 있다.(oblivoir에서만)

자신의 시스템에 어떤 글꼴이 있는지 알려면 prompt에서 `fc-list`를 실행한다.

영어 샘플 문단 The Battle of Bardia was fought over three days between 3 and 5 January 1941, as part of Operation Compass in the Second World War. Australian Major General Iven Mackay's 6th Division assaulted the strongly held Italian fortress of Bardia, Libya, assisted by air support and naval gunfire, and under the cover of an artillery barrage. The 16th Infantry Brigade attacked at dawn from the west, where the defenses were known to be weak. This allowed the infantry and 23 Matilda II tanks of the 7th Royal Tank Regiment to enter the fortress and capture all their objectives, along with 8,000 prisoners. In the second phase of the operation, the 17th Infantry Brigade exploited the breach made in the perimeter. On the second day, the 16th Infantry Brigade captured the township of Bardia, cutting the fortress in two. On the third day, the 19th Infantry Brigade advanced south from Bardia, supported by artillery and the Matilda tanks.